

문제가 있으신가요?
전화기를 들고 아래 번호를 누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충분하답니다.
- 2BR02B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감옥도, 슬럼가도, 미친 정신병원도, 장애인도, 가난도, 전쟁도 없는 세상이다.

모든 질병이 정복되었다. 노화 역시 정복되었다.

사소한 사고들을 제외하면, 죽음이란 그것을 자원하는 자들의 몫이었다.

미국의 인구는 4천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날, 시카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에드워드 K 웰링 주니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해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대기실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였다.

웰링은 55세였다. 평균 연령이 129세인 인구 분포로 볼 때 그는 젊은 편에 속했다.

검사 결과, 그의 아내는 세 쌍둥이를 해산할 예정이었다. 이 아이들이 웰링의 첫 번째 아이들이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너무 흐트러져 있고, 생기를 잃고, 미동조차 않았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대기실 역시 너무나 흐트러지고 우울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의자와 탁자 등은 모두 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바닥에는 페인트 방울을 막기 위한 덮개천이 깔려 있었다.

병원은 새롭게 꾸며지고 있었다. 자살을 하기로 결정한 어떤 남자를 기념하기 위한 재 단장이었다.

냉소적인 표정의 남자가 사다리 위에 걸터 앉아 벽화를 색칠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벽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외모로 나이를 먹어가던 시절이라면 서른 다섯 살 정도로 보일만한 남자였다. 노화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에 그는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

그 남자가 그리는 벽화는 매우 깔끔한 정원을 묘사한 것이었다. 하얀 색 옷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 의사와 간호사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방충제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있었다.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잡초를 뽑고, 늙은 나무를 베고, 낙엽을 모으고, 지저분한 것들을 소각로로 옮기고 있었다.

중세 네덜란드식 정원이나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과는 비교되기 힘들 만큼 깔끔하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다. 식물 하나 하나에 적당한 토양과 수분, 빛, 비료,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된 정원의 모습이었다.

병원 직원 한 명이 복도를 걸어 오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유행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당신이 내 키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할거야:
보라색 옷을 입은 소녀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이 슬픈 세상에 안녕을 고해야지.
당신이 내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할거야:
내가 왜 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야 할까?
나처럼 늙은 식물을 뽑아 버려야지.
사랑스러운 아기가 내 대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걸어 오던 병원 직원이 벽화를 쳐다 보더니 벽화를 그리는 화가에게 말을 걸었다.

"완벽하게 사실적이군요. 글자 그대로, 그림 속에 서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상상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화가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행복한 삶의 정원'이 이 그림의 제목이죠."

"히츠 박사님이 멋있게 보이는군요" 병원 직원이 이야기했다.

병원 직원은 그림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림에서 너무나도 잘 생긴 외모로 묘사된 남자는 병

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벤자민 히츠 박사였다.

"채워 넣어야 할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벽화를 그리는 남자의 말 뜻은, 그림 속에서 많은 얼굴들이 아직 공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림 속의 얼굴들은 그 병원의 주요한 의사들과 연방 종단처리국 시카고 지국의 주요 인사들의 얼굴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창작해 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병원 직원이 다시 이야기했다.

모멸감으로 얼굴을 굳힌 화가가 말했다.

"당신은, 제가 이런 페인트 찌꺼기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 생각에는 이 그림이 제가 보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건가요?" 병원 직원이 물었다.

화가가 바닥에 깔린, 페인트로 더러워진 천을 가리켰다.

"여기 삶의 모습을 포착한 작품이 하나 있군요. 여기 이 천을 액자에 넣어 두세요. 지금 이 그림보다는 훨씬 더 솔직한 그림이 될 겁니다."

"나이 먹은 비루한 불평꾼이군요. 당신은..." 병원 직원이 말했다.

"그게 범죄 행위가 되나요?" 화가가 냉정하게 말했다.

병원 직원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당신이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할아버님" 그러더니, 더 이상 살기 싫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다 - 2BR02B.

이 번호는 "To be Or Naught To Be" 를 줄인 말이었다. 병원 직원은, 가운데 "0"을 "naught"로 발음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읊조리던 대사였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명칭으로 불리는 정부 기구의 전화 번호였다: '자동판매기', '새장', '통조림 공장', '고양이 상자', '비열함 제거기', '쉽게 가는 기계',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행복한 난동꾼', '빠른 키스틀', '행운의 피에로', '세양액실', '조심스러운 믹서', '더 이상 눈물은 없다', 그리고 '뭘 걱정하지?' 가, 사람들이 그 정부 기구를 부르는 별명이었다.

"To be Or Naught To Be" 는 연방 종단처리국 소속 가스 처리실의 전화 번호였다.

화가가 자신의 코를 엄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내가 가야 할 때가 되면, 내가 갈 곳은 '세양액실'이 아니요."

"스스로 하시려고요? 흠....." 병원 직원이 말했다.

"상당히 지저분할 텐데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남은 것을 치울 사람들 생각 좀 해 주시죠. 할아버님."

뒤에 남은 사람들이 겪을 곤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기색조차 없이 화가가 이야기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지저분한 것도 처리할 수 있지요."

병원 직원이 크게 웃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웰링이, 고개를 숙인 채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큰 덩치의, 거칠게 보이는 여자가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대기실로 들어 섰다. 그녀의 구두, 스타킹, 치마, 코트, 가방, 그리고 간호사 캡은 모두 보라색이었다. 화가가 '심판의 날에 피는 포도의 색'이라고 불렀던 선명한 보라색이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커다란 메달 장식이 달려 있었고, 그 메달 장식에는 연방 종단처리국 서비스부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회전문 위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상징이었다.

여자의 얼굴에는 수 없이 많은 털이 나 있었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콧수염'이었다. 신기하게도 가스 처리실 여성 근무자들은 근무한 지 5년 정도가 지나면 콧수염이 자랐다. 근무 시작 당시에 얼마나 여성적이고 아름다웠는지는 관계 없이 콧수염을 단 여자가 되었다.

"제가 오기로 한 곳이 여기가 맞나요?" 여자가 화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화가가 대답했다.

"그림의 모델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제 이름은 리오라 던컨이에요." 말을 마친 여자가 잠시 침묵했다.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이군요." 화가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뭐라고요?" 여자가 물었다.

"신경 쓰지 마시오." 화가가 이야기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천국의 그림처럼 보이는군요."

"또는 다른 무엇이겠죠." 화가가 중얼거렸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꺼내 든 화가가 종이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던컨. 던컨. 던컨이라..... 그렇군. 여기 있군요. 당신은 이 그림 속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선택 받은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군요. 당신의 얼굴이 없혀 질 몸통을 골라 봐요. 몇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그녀가 음산한 얼굴로 벽화를 쳐다 보기 시작했다. "흠...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예술이라고는 하나도 몰라요."

"수 많은 몸통이 놓여 있다는 거죠? 좋아요. 순수 예술가의 관점에서 여기 있는 이 몸통을 추천합니다."

화가가 가리킨 몸통은, 쓰레기 조각장으로 커다란 나무 가지를 운반하는 여자의 그림이었다.

"아..... 그 모습은 처리 부서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저는 서비스 부서에 속해 있어요. 저는 '처리'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리오나 던컨이 대답했다.

벽화를 그리는 남자가 기쁜 듯이 손바닥을 마주 쳤다.

"예술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시더니 몇 분만에 예술의 핵심을 이해하는군요. 저보다 더 대단한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수레를 미는 잡역부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죠! 정원용 가위를 든 사람이라든가 가지를 쳐내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울리겠군요."

화가가 다시 가리킨 것은, 보라색 옷을 입고 사과 나무의 죽은 가지를 톱으로 베어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화가가 은근한 어조로 여자에게 물었다.

"세상에나." 여자가 얼굴을 붉히더니 갑자기 공손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히츠 박사님 바로 옆에 있게 되는군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화가가 물었다.

"무슨 말씀을요. 뜻 밖의 행운이죠! 제게는 커다란 영광이에요."

"히츠 박사님을 존경하시는군요?" 화가가 물었다.

"박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죠?" 위인을 바라보는 찬양의 눈빛으로 히츠 박사의 초상화를 쳐다 보면서 그녀가 대답했다. 그 초상화에는 잘 그을린, 흰 색 머리를 가진, 240세의, 전지전능한 제우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사님을 어느 누가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 분께서는 최초로 시카고에 가스 처리실을 설치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을 히츠 박사 바로 옆에 그리는 일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군요. 쓸데 없는 '부위'를 잘라 내는 모습이 무척 잘 어울릴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그녀의 일은 사람들이 '처리'되는 동안, 그들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리오나 던컨이 그림을 위해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동안, 히츠 박사 그 자신이 대기실 안으로 들어 왔다. 히츠는 2미터가 넘는 키에, 중요한 인물로서의 명예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던컨 양. 던컨 양." 히츠 박사는 던컨을 놀려 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에요."

"박사님과 제가 같은 그림에 그려지는 중이에요." 던컨이 수줍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좋아요. 좋습니다." 히츠 박사가 진심에 찬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저 그림 말입니다. 상당히 멋지지 않나요?"

"박사님과 같은 그림에 등장한다니 큰 영광이에요." 던컨이 다시 말했다.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저 역시 당신과 같은 그림에 그려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당신 같은 여성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롭고 완벽한 세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히츠 박사가 기분 좋게 대답했다.

그는 던컨을 칭찬하고는 분만실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떤 아기들이 태어났는지 짐작해 보세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아요." 던컨이 대답했다.

"세 쌍둥이랍니다!" 히츠 박사가 외쳤다.

"세 쌍둥이!" 던컨이 따라 외쳤다. 그녀는 아마도 세 쌍둥이의 법적 의미에 대한 자신의 직업적 감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법에 의하면,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기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아이는 바로 '처리' 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세 쌍둥이가 모두 살기 위해서는 세 명의 자살 자원자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세 명의 자원자를 구했나요?" 리오라 던컨이 물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한 명은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더군요."

"제 생각에는 부모들이 사람을 구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세 명 단위로 된 예약이 없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오늘의 예약자들은 모두 한 명 단위로 예약된 사람들이었어요. 부모의 이름이 뭔가요?"

"웰링이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 서면서 대답했다. 그의 붉어진 눈과 초라한 외모가 피곤함과 긴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에드워드 K. 웰링 주니어가 행복한 미래의 아빠의 이름이죠."

그가 오른 손을 들고, 벽 위의 어느 한 곳을 응시하더니, 쉼 듯한 웃음 소리를 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아빠가 된 사람의 이름이군요."

"아. 웰링 씨." 히츠 박사가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을 못 봤군요."

"투명 인간이죠. 저는." 웰링이 대답했다.

"당신의 세 쌍둥이가 막 태어났다는 호출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우와....." 웰링이 허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리 기뻐하지 않는군요." 히츠 박사가 말했다.

"제 처지에 처한 누가 기뻐할 수 있죠?" 웰링이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손으로 '속 편한 단순함'을 나타내는 제스처를 취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세 쌍둥이 중 누구를 살려야 할지 고르는 것과 제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한 난동꾼'으로 가는 일이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잘 '수령'되었다는 영수증을 들고 이 곳으로 다시 와야죠."

이 말을 들은 히츠 박사는 웰링을 바라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커다란 몸을 웰링에게 기울이면서 박사가 물었다.

"인구 통제의 가치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웰링 씨?"

"아주 완벽한 체계라고 생각해요." 웰링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과거의 시절로 돌아 가시고 싶으신가요? 지구 상의 인구가 200억에서 시작해서, 400억, 800억, 그리고 마침내는 1,600억이 되어 버리는 그 시절로 되돌아 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소핵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니. 전혀요." 웰링이 답했다.

"웰링 씨. 소핵과는 블랙베리의 일부죠. 작은 혹처럼 보이는 작은 알갱이들을 말하죠." 히츠 박사가 말을 이었다.

"만약 인구 통제가 없었다면, 인간들은 이 작은 행성에서 블랙베리의 소핵과들처럼 뭉쳐서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웰링은 계속해서 벽의 어느 한 곳을 쳐다 보고 있었다.

"약 200 여년 전까지도, 과학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현재의 인구 통제 법률을 만들기 전에는, 지구 상에는 먹을 물이 부족했습니다. 식량도 해초를 처리한 역겨운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야생 토끼처럼 자손을 낳겠다는 재생산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동시에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권리 역시 포기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다만 제 아이들을 원할 뿐입니다." 웰링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세 쌍둥이 모두가 살아 남는 것을 원하는 것뿐이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히츠 박사가 답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죠."

"그리고 제 외할아버지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웰링이 말했다.

"가까운 친척을 '고양이 상자'로 데려 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히츠 박사가 공감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때 리오라 던컨이 끼어 들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히츠 박사가 물었다.

"사람들이 '고양이 상자'니 뭐니 하는 이름으로 저희 사무실을 부르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가 이야기했다.

"그런 명칭들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거든요."

"당신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히츠가 스스로를 정정했다.

"저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츠 박사는 공립 가스처리실의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명칭은 그 누구도 실제 대화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었다.

"'윤리적 자살 스튜디오'라는 명칭이 맞는 것이죠." 히츠 박사가 말했다.

"그렇게 불러 주시니 훨씬 낫군요." 리오라 던컨이 말했다.

"당신이 오늘 살리기로 선택한 아이는 말이죠." 히츠 박사가 웰링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인구 통제 덕분에, 그 아이는 훨씬 행복하고, 넉넉한 공간을 가진 풍성한 지구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저 그림 속의 정원 같은 곳 이죠"

히츠 박사가 머리를 흔들더니 말을 이었다.

"200 년쯤 전, 제가 젊었을 당시만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20년 후에는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인류를 살아 갈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광채에 찬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점차 사라져 갔다. 왜냐하면, 웰링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든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웰링이 히츠 박사를 쏘다. "한 명을 위한 자리! 꽤 묵직한 자리군!"

그리고 웰링이 리오라 던컨을 쏘다. "단지 죽는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던컨이 쓰러졌다. 그러자 웰링이 다시 외쳤다. "2 명 분의 자리!"

마지막으로 웰링은 그 자신을 쏘다. 이제 세 쌍둥이를 위한 자리가 모두 마련되었다.

아무도 달려 오지 않았다. 아무도 총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다.

벽화를 그리는 화가만이 사다리에 걸터 앉아서 이 비극적인 현장을 쳐다 보고 있었다.

화가는 인생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임신이 되면 태어나고, 태어나면 아이를 낳고 최대한 오래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 작은 행성이 영원토록 유지되지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

화가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들은 모두 암울한 것들이었다. '고양이 상자', '행복한 난동꾼', '쉽게 가기' 라는 다양한 별명을 가진 그것보다 암울한 것들이었다. 전쟁, 전염병, 또는 기근 정도만이 화가가 떠 올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페인트가 묻은 바닥의 천위에 자신의 붓을 던져 버렸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 '행복한 삶의 정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 오기 시작했다.

그가 웰링의 권총을 집어 들었다. 그 자신을 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화가는 그럴 만한 배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때 대기실 구석에 있는 전화를 발견했다. 그는 그 전화로 다가서서 쉽게 잘 기억되는 전화 번호를 눌렀다: "2BR02B"

"연방 종단처리국입니다" 매우 따듯한 목소리의 여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얼마나 빨리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오늘 오후에는 예약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자가 답했다.

"어쩌면 더 빠른 시간도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좋아요. 예약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원이 이야기했다.

"우선 시카고 시와 미국을 대표해서 선생님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대표해서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미래의 세대들이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입니다."

[참고]

이 소설의 제목인 '2BR02B'는 작품 안에서 소개되었듯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의 압축적 표현이다. 동시에 이것은 '연방 종단처리국'의 전화 번호이다.